

은상

이름만큼 특별한, 쌍다리 쉼터



경 나 원 • 인천 당하초등학교 6학년

사람이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늘을 바라보면 행복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평소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 하늘을 자주 보려 노력했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 내심 신경 쓰였는데 드디어 나는 행복한 사람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가족들과 처음으로 캠핑을 가게 됐다. 확실히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없지 않다. 캠핑 장소에 도착하니 큰엄마, 큰아빠를 비롯한 친척 분들이 이미 텐트를 치고 계셨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그곳의 이름을 알게 됐다. 쌍다리 쉼터, 특이한 이름이니 만큼 나에게 특별한 곳이 될 것 같은 기운이었다.

이곳을 소개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쌍다리 쉼터라는 계곡이다. 정식 캠핑장은 아니지만 우리 말고 놀러 온 사람이 꽤 많을 정도로 확실히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다. 텐트를 남

쪽에 두고 앞을 바라보면 커다란 산들이 쪽 진을 치고 있고, 그 아래로는 꼭 동화책에서만 보던 하얀 자갈모래가 해변을 이루고 있는 아주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처음 와 본 곳에서 처음 보는 커다란 텐트가 설치되는 것을 구경하다가 캠핑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다. 깨끗한 하늘색으로 가득찬 시야 밑자락으로 얼핏 고개를 내미는 푸른색의 이파리들, 따뜻한 햇빛이 몸에 닿자 부르르 떨리는 것이, 그와 모순되게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약간의 한기를 느끼는 것이 좋았다.

어중간하면서 극과 극이 확연히 구분된달까, 꼭 비현실적인 세상에 온 것 같달까. 평소 무뚝뚝한 나이지만 이런 곳에만 가면 감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랄까, 그 현상을 재촉한 게 고개를 조금 더 들면 보이는 드높은 산들, 햇빛에 반사되어 뚜렷이 보이는 이파리 하나하나였을 것이다. 도저히 어린 나의 눈으로는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섬세함이 뇌리에 박혀 맴돌았다. 진하게 다가와 시야를 자극하는 원색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혼란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결정을 본 나를 칭찬해 주고 싶었을 뿐이다.

기분 좋게 시선을 내려 바라본 계곡은 이야기 들었던 대로 밑이 흰히 보일 정도로 투명했다. 내일 그것을 훌쩍리며 놀 나와 쌍둥이 동생, 먼 친척 동생을 머릿속에 그리며 슬며시 웃었다. 지글지글하는 소리에 옆을 보니 한참 저녁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직 멀어 보여 서서히 눈을 감아 귀 기울이니 조금씩 작은 소리들이 귓가에 파고든다. 고요한 줄로만 알았던 곳에서 많은 소리가 들린다. 잔잔한, 어쩔 때는 귓가를 자극하며 휘몰아치는 파도 소리가 먼저 통과하고, 차례로 바람에 스치는 풀잎 소리, 그 위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풀벌레의 날갯짓 소리, 그리고 수다스럽게 들려오는 가지각색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 다

정히 들려오는 밥 먹으라는 소리에 쏘르르 달려가 저녁을 먹었다. 첫 캠핑의 저녁식사여서 그런지, 그걸 축하해 주는 우주 너머 보름달의 달빛 때문인지 저녁은 정말 맛있었다. 아직 그 맛이 잊히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평소와는 달랐던 하루를 뿌듯이 되돌아보자 어느새 다음날이 되어 있었다. 드디어 계곡 물에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이 뽁뽁 얼 정도로 시린 물이 그 진가를 발휘하듯 짧지만 강하게 폭포로 떨어져 흘렀다. 잔잔하지만 깊은 것이 무섭다는 게 사실인지, 하류에서조차도 얕은 곳에서만 놀았지만 즐거운 것은 매한가지였다. 동화 속 세상처럼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 그대로인 이곳이 파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있는 바다는 아니었지만 계곡은 계곡만의 매력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았다. 저 멀리 티 하나 없이 흰하 보이는 물속이, 간간히 조화롭게 부는 서늘한 바람이 말이다. 대체 쌍다리 쉼터의 매력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할 정도였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다 보니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다. 짧지만 많은 추억을 공유한, 나에게만 컸던 텐트가 사라지는 것을 보니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물씬 든다. 에너지를 가득 샘솟게 하는 태양, 고마웠던 몽환적인 달빛, 하나하나 존재감이 뚜렷했던 이파리들, 군침 돋게 완성된 저녁식사, 그리고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는 수영까지, 그리고 보니 온통 행복한 기억들만이 남아 있다. 아마 똑같은 구조의 도시와는 다른 자연의 세계, 매일매일 색다른 모습을 보여 줄 쌍다리 쉼터와 함께 했기 때문이겠지?

가끔 새로운 시선을 경험해 보고 싶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뽕뽕 숨겨놓고 싶기도 하지만 멋진 곳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이름대로 특별한 쉼터가 됐으면 한다.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드는 쌍다리 쉼터. 의외의 곳에서 발견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고, 언제까지나 보전되기를.

